

애국의 궤도 따라 심장은 고통친다

평양 기관차대 책임기관사 박광세 동무

《책읽기판사동지, 어서 기적 소리를 울리십시오.》
 벌써 몇번째로 작업반원들이 재촉하는 말이였다.
 그러나 박광세 동무는 섣불리 기적을 울리지 못하였다. 처음 기관차에 오르던 20년전 그 날처럼 흥분으로 가슴이 높아져 있었다.
 《우리 다같이 506호의 <출진>을 축하합니다!》
 역구내를 뒤흔들며 기적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506호 작업반원들의 눈가에 물기가 번득였다. 박광세 동무는 보람찬 지난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 보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면길던 닭이 팔려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남다른 포부와 희망을 가슴에 안고 평양기차전문학교를 지망했던 박광세 동무가 학교를 졸업하고 평양기차대 기관차조사로 배치받은 날이였다.
 꿈을 이룬 기쁨을 안고 기관차의 여객거기기를 살펴보면 그는 대적으로도 혁신자로 소문난 책임기관사와의 상봉을 뜻밖에도 기관실에서 하게 되었다.
 그는 기관실을 도사리고있는 책임기관사를 도와 결례를 짚어 주었다. 한동안이나 지나 청소를 끝낸 그는 손을 씻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비누칠을 해도 기쁨때가 지워지지 않았다.
 그때 나이많은 책임기관사 그의 등을 꼭 치며 이렇게 말

하였다.
 《우선 손씻는 법부터 배워야겠소.》
 박광세 동무의 첫결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루빨리 기관사가 되려는 그의 정열은 불꽃같았다. 기관차의 속내를 꿰뚫기 위해 내내 기관실에 들어가 살다싶이 하니 퇴근시간도 있을 때면 뜨겁게 땀을 흘려 흘려가며 돌아왔다.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그는 온 정진을 책을 읽는데 쏟아 부었다.
 동무들의 새벽잠을 깨울세라 함축공원의 가로등밑에서 기관차의 구조작용을 익히며 맞이한 새날은 얼마안가.
 마침내 그는 당당한 기관사가 되었으며 몇해후에는 내연 506호 기관차의 책임기관사로 임명되었다.
 날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기쁨보다 책임감으로 무거워졌다. 드문드문 한하는 기관차의 동을, 집집 자기 마력을 다 내지 못하는 기관차. 몇달후에는 크랭크축까지 부러지게 되었다.
 밤길도록 기관차에서 자리를 뜨지 못하는 그의 가슴은 뜨겁고 아찔했다.
 (나아가 어려움을 겪는 이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주지않아야 하는가. 기관차를 잘 정비하여야 하는가. 기관차에 관한 이론에 대해 배우고 싶어 판리할데 대한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결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는 당원증을 품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날 우리의 철도로동계급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웅하게 싸워 수송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왔다고, 만일 오늘 우리의 철도일꾼들이 지난 시기 철도로동계급이 발휘한 것과 같은 영웅적투쟁정신을 가지고 사업한다면 똘고나가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시던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자자구구 되새겨보았다.
 며칠후 그는 수백리길을 다녀왔다. 크랭크축을 구해온 그는 이어 자제로 크랭크축연마기구를 장만하여 축복변형을 바로잡고 수리공들과 지혜를 합쳐 크랭크축문제 해결하였다.
 기관차의 숨길을 열어놓은 그날 그는 작업반원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였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탈미야. 우리는 기적처럼 《26호보합기대영예상》을 수여받을수 있게 기쁨진땀마로 만들어라!
 그는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면서 완전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연구소로, 공장으로, 방방곡곡 수리반원들을 찾아다니고 기관차의 기술상태를 하나하나 완비시켜나갔다. 늘 기관차를 먼저 생각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걸머진 그의 이진작업 감동한 작업반원들 따라나섰다.
 승무의 여가시간에도 작업반원들은 참고서적을 읽어내며 서로서도 문과를 풀어나갔고 서로서도 도와가면서 기술자로나 전문수리공들에게만 의존하던 어려운 수리도 자기 손으로 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 과정에 내연 506호 기관차의 성능은 해마다 갱신되어 30만km의 무사고주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26호보합기대영예상》을 쟁취하게 되었다.
 원상복구한 기관차에 사람들이 축하의 꽃송이를 얹어줄 때 박광세 동무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기관차가 자리잡고있었다. 그것은 고장나 서있던 내연 506호기관차였다. 그 기관차도 되살려낼 결심을 품고 박광세 동무는 작업반원들과 함께 일에 달라붙었다.
 낮에 밤을 이어 불꽃튀는 전투를 벌이던 어느날 그는 퇴근하여 집에 들어서다가 구멍뚫은 나르는 안해와 부딪치게 되었다.
 눈곱이 달아올랐다. 집격정은 말고 직장일만 잘하라고 언제나 떠밀어주고 힘을 더해주는 안해.
 그를 위해 집에 못 한번 제대로 박아준적 없는 자기였던 것이다.
 《여보, 별로 큰일도 못 치는 나때문에...》
 《기관차 있고야 이 집도 있다고 당신이 늘 말하지 않았어요.》
 안해는 그에게 자그마한 소포우레미를 안겨주었다. 거기에는 지방에서 사온 박광세 동무의 어머니가 보낸 많은 액짜리나무젓과 함께 편지가 담겨있었다.
 《오늘도 너의 기관차가 1등이나? 너를 조금이나마 돕고싶어 틈틈이 마련해두었던 세트를 보낸다. 아무쪼록 나라의 기관사수실을 잘하게라...》
 고향의 뜨거운 당부를 안고 그는 또다시 먼길을 떠났다.

때로는 설계원, 주물공이 되고 때로는 분석공이 되어 우리 식의 새로운 기동토시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느 한 기업소에서 지새운 밤만도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쪽 그가 해야 할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 길에 내일, 내일이 따로 있더라.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명에도 보수도 바람이 없이 꽃잎이 시련을 이겨나가는 그와 발걸음을 맞추며 연구사들과 기능공들은 물론 박광세 동무의 뜨거운 인정미에 끌려 한집안사주로 된 작업반가족들도 모두 떨쳐나섰다.
 그 날에 기동토시를 비롯한 많은 중요부속품들이 하나둘 제작완성되었고 내연 506호 기관차는 마침내 오늘과 같이 《출진》의 기적을 울리게 되었단 것이다.
 기관차 2대를 새로 만든것이나 갈다며 정말 보기 드문 애국자라고 박광세 동무를 칭찬하던 평양기차대 일꾼들과 작업원들의 평가를 두고 우리는 생각한다.
 비록 가슴에 요란한 흉흔은 빛나지 않아도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달려서가는 아니라 한몸을 내어 화답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고 영웅적인 인간이 아니겠는가.
 기관차에 대한 그의 애착은 곧 우리 제도에 대한 애착이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거니 이런 마음들이 이 땅 어디에나 차려져 내 나라엔 애국자가 많고 영웅이 많은것이다.
 본사기자 조향선

제 1 2 차 김일성 화축전 선전화가 나왔다



【평양 4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될 제 1 2 차 김일성 화축전 선전화가 나왔다.
 선전화의 중심에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피어난 불멸의 꽃 김일성 화와 혁명의 요람 만경대고향집이 만발한 꽃속에 형성되어 있다.
 선전화에는 《제 1 2 차 김일성 화축전》이라는 글발이 씌어져있고 김일성 화축전 마크가 그려져있으며 추위만제, 장소, 기간이 밝혀져 있다.
 제 1 2 차 김일성 화축전 선전화는 주제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불멸의 꽃과 더불어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만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태양절을 맞으며 기념우표 발행

【평양 4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기념우표들이 발행되었다.
 조선우표사에서 창작하여 내놓은 4종의 우표 우표에는 《4.15》, 《태양절》이라는 글발이 씌어져있다.
 우표에는 우리 혁명과 인류의 뜨거운 지성이 반영된 우표들은 경에 하는 김일성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며 4월의 명절을 의의있게 기념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인류의 뜨거운 지성이 반영된 우표들은 경에 하는 김일성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며 4월의 명절을 의의있게 기념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속혁신, 계속진전하는 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기풍입니다.》
 뜻깊은 2월 어느날이였다. 직장장 한수익동무는 연방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자동차가 왜 아직 도착하지 않겠는가?)
 차를 실은 자동차가 떠났다는 소식을 받은 때부터 여러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으니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는 창밖을 내다보는 로동자들의 얼굴에도 안타까운 빛이 어렸다. 10월의 경축광장에 빛나는 로렐적성과를 안고 멋있게 들어설 불같은 지향으로 년 초부터 세찬 공격전을 벌려

영광의 일터에 넘치는 혁신의 기상 단천광산기계공장 청년조직장 일꾼들과 로동자들

은 그들이였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단천지구의 생산들에 필요한 전자, 광차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자고 했는데 이처럼 자재문제가 발목을 잡고있었다. 조립작업반장 양철남동무가 자리를 잡고 일어났다.
 《저희들이 자동차를 마중가겠습디다.》
 한수익동무는 작업반장의 두 손을 꼭 그럭였다.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솔선수범을 들려주고 앞장서서 붙어다니는 제대군인초급일꾼이였다.
 한수익동무에게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언제나 명심하고 올해에도 정초부터 신들미를 든든히 조이고 기세를 올리는 로동자들의 모습도 안겨왔다.

다. 소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광차생산에서 난관이 조성되었을 때 멀리서 가서 구해온 소재를 밤을 새워가며 단조하여 광차축생산에 보장한 김철수, 정성호동무들, 철삭공구를 우세로 보장해주기만 기다릴수 없다고 하면서 자재로 만들어 이용함으로써 생산에 크게 이바지한 선반공 김병일동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는 작업반원들을 위해 안해와 함께 생의 것 마련한 지원물자를 가지고 현장으로 달려온 조립공 리광복동무...
 최근년간만 해도 두번이나 자기 자신의 일터에 찾아오며 생산활동의 방도를 밝혀주고 훌륭한 생산조건을 마련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이어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는 로동자들의 양양된 정신세계에 가슴이 후터워졌다.
 로동자들은 지체없이 길을 떠났다. 앞장에는 부문당비서가 서있었다.
 화불을 들고 사나운 눈보라를 헤쳐가는 그들의 가슴속에 있는 팔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강성대국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하려는 맹세가 녹아있었다.
 무릎치는 눈을 헤치며 10여리를 걸어간 그들이 어느 한 산길에 접어들었다. 눈사태에 길이 막혀 오기도 못했던 길은 이제 폭풍이 불었다. 눈을 다치고 길을 열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동무들! 자재를 중심으로 나릅시다.》

부문당비서의 말이였다. 로동자들은 한사람같이 호응해나섰다. 그들은 자재가 든 배낭을 지고 다시 눈보라길에 나섰다. 그들이 지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올 무렵이였다.
 그들은 어떤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 기간 매일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지금 그들앞에는 단천지구 생산들에 필요한 전자, 전자비행기나 어느 한 공장의 개건공사에 필요한 설비들을 생산해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신심과 확판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에 전진한 보폭을 맞추어나갈 때 못헤달 일 없었다는 것이 보람한 투쟁의 길에 이르는 길이었다. 그들이 간직한 진리이다.
 본사기자 김승표

우러러 따르는 한 마음 판포시 관문동 김성희동무의 가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어머니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하고있으며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고있습니다.》
 날마다 새벽의 요리를 깨뜨리며 발자국소리가 조용히 울린다. 어머니수령님을 형성한 유화작품이 모서진 만포시 판문동 돌벽으로 두 너년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들은 만포시 판문동 김성희동무와 그의 딸인 만포시 중학교 교원 김향림이였다.
 매일같이 이른 새벽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유화작품을 더 밝고 정중하게 모시는 사업을 진행하는것은 김성희가정의 어

겨울 수없는 일과이다. 그 일과 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변함이 없다.
 이른 새벽마다 어둠없이 울리는 발자국소리. 명멸마다 어머니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유화작품앞에서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꽃송이들...
 소학교시절부터 김성희동무의 손목을 잡고 새벽길에 나서곤 하던 아들 김향림동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어엿한 병사가 되었다.
 그가 복무하는 부대에서는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높이 받들어 모시는 사업에서 남달리 모범인 김향림동무의 소행을 담은 편지를 자주 고향에 보내온다고 한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교단에 선 딸 김향림동무가 단발머리소녀처럼 그대처럼 어머니



흥분은 기쁨을 넘어 위대한 조국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다. (작업반원들이 자동차를 마중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덕성관평에 높이 모신 한 생을 해바라기처럼

어머님수령님의 태양상앞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그중에서도 유난스럽게 붉게 된 불멸의 꽃 김일성 화가 첫눈에 안겨준다.
 그 꽃을 가꾼 사람들은 탄광로동자 천정규동무와 그의 안해 류승철동무

우리 마을 <애국자아바이>

그 누가 알아주던말던 새벽부터 저녁늦게까지 그가 모아보내준 많은 거름과 그의 성의가 갖는 여가까지 영농자들은 영농전투에 펼쳐나선 미극협동농장과 시주반농장 농장원들을 크게 고무하였습디다.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도 많은데 좀 쉬워달라 일하라고 권고할 때마다 그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는 일감을 찾아 바빠 살고있습디다.
 지난해에 성의껏 거름 백

정리 드리군 하였다.

엔제나 태양만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한생을 변함없이 빛나게 살려는 리업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은 배두산지구에 혁명의 성지로 더욱 빛내기 위한 사업에도 지성을 바쳐가고 있다.
 로동통신원 연 전 행

실화

《준마 처녀》
 보람찬 하루일이 시작되었다. 기대사들이 누비며 날렵하게 몸을놀리는 강순의 얼굴에 탐방을 이 송풍송풍 멧혔다. 그의 가까이가서 일하던 금희는 흘린듯이 강순의 작업모를 바라보았다.
 《언니! 작업반장이머니말이 사실이에요?》
 강순은 뜯는듯한 얼굴로 금희를 바라보았다. 금희는 어찌저녁 작업반장으로부터 강순이 매일 계획도 넘쳐 수행하고 작업반의 모든 기대들에 정중할 목표를 세웠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작업반의 수습대나 되는 기대들?)
 그는 그때 얼마나 놀랐던가. 자기는 고작 말은 기대에나 익숙하게 습득하고있을 때 강순은 사람들을 놀래우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있었다.
 《언니, 사람들이 <준마처녀>의 목포가 너무 아름답다고 하네...》
 강순은 빙그레 웃기만 하였다.

강순은 형제산구역의 어느 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진출한 때부터 10여년 세월 분과 초를 쪼개며 한미의 천이라도 더 짜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기특한 처녀였다. 지난해 150인원투에로 부문의 호소를 받아들인것을 때는 늘 일터에서 살다싶이 하며 달리고달리 7월초에 벌써 2년분 계획을 수행하고 그 세를 높추기 없이 분발하여 5년분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참으로 그것은 기적이였다.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그는 오늘날도 취업일이 달리고있었던 것이다.
 《어서 가라, 늦었다.》
 강순이 재촉해야 금희는 걸음을 다투었다.

순에게 말하였다.
 《언니, 우리의 임무는 어떻게 해서든 천을 더 많이 짜는것이 아니냐? 이런 일이야...》
 강순은 한동안 말없이 금희를 바라보았다. 그러던 틈에 금희의 손목을 꼭 잡으며 말하였다.
 《금희, 난 우리가 한미의 천을 생산해도 늘 자기 옷감을 짜는 심정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
 강순의 그 말은 금희의 가슴을 뚫어 주고 울려주었다. (자기 옷감을 짜는 심정!)
 《이전 바로 아버지장군님께서 지난해 우리 장군을 찾아주셨을 때 하신 가르치심이다.》
 강순은 조용히 머리를 들었

다. 영광의 그날이 어찌런듯 떠올랐다.
 지난해 뜻깊은 남평등년범립발포기념일, 삼복의 짙은듯 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고 풍광을 찾아주시고 망직공녀성들을 뜨겁게 수복해주신 아버지장군님. 그 사랑의 한몸에 안겨 강순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날 강순은 하염없이 행복의 눈물을 쏟았다.
 그는 아버지님을 일찍 잃었다. 공장에서 한창 일하고있을 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라 부르는 아버지장군님의 그 사랑이 이 그는 보람의 길을 꽃잎이 이 갈수록 있었다. 영광의 그날 강순은 모든 로동자들이 자기 옷감을 짜는 심정으로 천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창고리 바쳐야 한다고 하신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이어가 보답할 불타는 맹세를 다짐고 이 땅으로 떠나갔다.
 (기대마다 다 자기의 특성이 있고 로동자들마다 자기 할 몫이 따로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잠겼던 그는 강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아버지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더 많은 천을 짜내자우라.》
 금희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자신은 지금껏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일해왔던가. 기대나 많이 맡아가고 준마대 계획을 넘쳐내면 <준마처녀>가 되는것처럼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들은 또다시 일손을 잡았다. 흐르는 1분1초, 한시간 한시간을 애국의 뜨거운 마음으로 수놓아가는 그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질 좋은 천이 밀릴이 쏟아지고있었다.
 어느덧 하루일이 끝날 무렵이였다. 직장장이 작업반원들에게로 달려왔다.
 《동무들, 오늘도 천생산실적은 강순동무가 제일입니다.》
 작업반원들이 모두 강순에게로 모여왔다. 축하의 박수소리가 요란히 울려 퍼졌다. 한 처녀 직포공이 그에게 꽃폭걸이를 걸어주며 말하였다.
 《우리모두 강순동무를 축하해줍시다!》
 강순의 두눈이 붉어졌다. 그는 작업반원들을 정다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응당 할 일을 했을뿐인데... 동무들! 우리모두 더 많은 천을 생산하여 더가오는 10월의 대추전장에 자랑스럽게, 멋있게 들어십시오.》
 장군님 태워주신 준마에 올라 내 한생 그 이름을 빛내며 살리...
 노레소리는 경애하는 장군님 아시는 공장의 《준마처녀》로 한생을 빛내려는 그들모두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넣고 멀리로 울려 퍼졌다.
 본사기자 현 경 철

